

2025년 4/4분기
기업경기전망 보고서

2025. 9.



경 산 상 공 회 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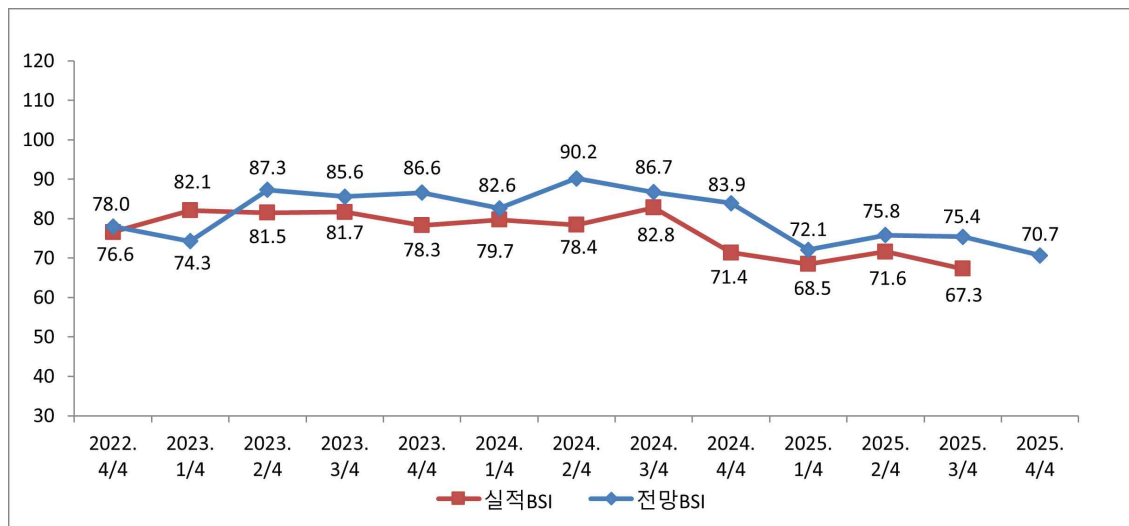
I. 경기전망(BSI)

본 상공회의소 지역 내에 소재하는 1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「2025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」에 따르면, 2025년 4/4분기 기업경기 전망실사지수(BSI)는 전 분기(75.4) 대비 4.7포인트 하락한 70.7로 조사되었다.

이는 장기적인 내수 부진 기조에 더해 美 관세정책 시행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심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.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은 韓·美 간 관세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일본·유럽(15%)대비 불리한 25%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, 가격 경쟁력 저하와 시장 점유율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,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.

한편, 2025년 3/4분기 BSI 실적치는 지난 분기 71.6 대비 4.3포인트 하락한 67.3으로 기준치(100)를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경산 · 청도지역 경기전망 B.S.I 추이>



구분 BSI	'22년 4/4	'23년 1/4 2/4 3/4 4/4				'24년 1/4 2/4 3/4 4/4				'25년 1/4 2/4 3/4 4/4			
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
전망 BSI	78.0	74.3	87.3	85.6	86.6	82.6	90.2	86.7	83.9	72.1	75.8	75.4	70.7
실적 BSI	76.6	82.1	81.5	81.7	78.3	79.7	78.4	82.8	71.4	68.5	71.6	67.3	

◆ BSI(Business Survey Index)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~200 사이로 표시되며,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,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.

주요 업종별 4/4분기 전망 BSI는 기계·금속업종이 75.4, 섬유 65.2, 화학·플라스틱 72.3, 기타 업종이 65.4로 나타나 전 분기에 이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주요 부문별 4/4분기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, 매출액은 63.6, 영업이익은 61.9, 설비투자가 71.4, 자금사정이 61.9로 나타나 전체 부문에서 기준치(100)를 크게 밑돌며 부진했다.

<주요 업종별 · 부문별 B.S.I>

분 기		2025년 3/4분기 실적	2025년 4/4분기 전망
항 목			
업 종 별	전 제조업	67.3	70.7
	기계·금속	71.3	75.4
	섬 유	62.1	65.2
	화학·플라스틱	71.6	72.3
	기 타	60.7	65.4
부 문 별	매출액	67.2	63.6
	영업이익	68.8	61.9
	설비투자	79.5	71.4
	자금사정	59.1	61.9

Ⅱ. 기업경영 핵심변수 및 정책과제

- ① 올 한해도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연간 매출 목표 대비 실적을 전망해본다면?

	백분율
크게 미달	21.8%
일부 미달(10% 이내)	47.8%
목표 수준 달성	23.9%
일부 초과 달성(10% 이내)	6.5%
크게 초과 달성	0.0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69.6%가 당초 계획 대비 연간 매출에 대해 ‘크게 미달’ 또는 ‘일부 미달’한 것으로 응답하였다.

- ② 현 상황에서 매출 증대에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내수시장 침체	48.1%
수출시장 경기 둔화	25.0%
시장 경쟁상황 심화	19.2%
공급망 등 생산차질	1.9%
기 타	5.8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48.1%가 매출 증대에 가장 큰 애로요인을 ‘내수시장 침체’라고 응답하였다.

③ 당초 계획했던 연간 영업이익 목표 대비 실적을 전망해본다면?

	백분율
크게 미달	32.6%
소폭 미달(10% 이내)	47.8%
목표치 달성	17.4%
소폭 초과(10% 이내)	2.2%
크게 초과 달성	0.0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80.4%가 당초 계획했던 연간 영업이익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.

④ 기업경영 상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인건비 상승	28.8%
관세 증가	10.2%
원자재가 상승	39.0%
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	13.5%
에너지비용 증가	3.4%
기 타	5.1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39%가 ‘원자재가 상승’, 28.8%가 ‘인건비 상승’을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응답하였다.

⑤ 생산 및 조직 관리 차원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?

	백분율
인력 수급	30.9%
노사 관계	3.6%
기업 자금 사정	34.5%
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	7.3%
기업규제 대응	20.1%
기 타	3.6%
합 계	100%

☞ 조사참여 기업의 34.5%가 ‘기업 자금 사정’, 30.9%가 ‘인력 수급’, 20.1%가 ‘기업규제 대응’ 순으로 응답하였다.